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Evergreen presses ahead with 20-boxship order worth up to \$2.6bn

대만 선사 Evergreen이 선대 확충계획에 따라 15,000TEU급 컨테이너선 20척을 발주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 했다고 보도됨.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이마바리조선, Hudong Zhonghua, Jiangnan 중 건조사를 선택할 예정이며 발주 규모는 23~26억달러 수준이라고 보도됨. (TradeWinds)

FFA traders back container rates to stay at historic levels

컨테이너 운임 선도계약 시장 내 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까지 상승했다고 보도됨. 2022년 초까지 가격은 전에 없던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아시아-지중해 노선의 경우 4개월 간 +250% 가량 상승하기도 했다고 보도됨. (TradeWinds)

China's imports of US LPG continues to support VLGCs

중국과 인도의 LPG 수요 증가는 최근 VLGC 발주확대의 이유라고 보도됨. 2019년 미-중 간 무역분쟁으로 인해 미국산 LPG수출 물량이 zero 수준에 이른 뒤, 상황은 반전되어 미국은 중국의 최대 LPG 수입국이 되었다고 보도됨. (TradeWinds)

Offshore prospects starting to improve for Singapore yards

전세계 시추장비 가동률이 개선되면서 해양/시추 시황이 바닥을 지났을 수도 있다고 보도됨. deep-water semi-submersible과 jack-up rig의 가동률이 각각 +3%, 8%씩 상승했으며 하루 운임 역시 6~13% 상승했다고 보도됨. (TradeWinds)

VLCC 발주 증가 이유는?

VLCC 운임이 바닥을 지나면서 선주들의 신조선 투자 심리도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됨. 3월에만 8척의 VLCC가 발주됐다고 보도됨. 이 중 4척은 현대중공업이 수주했고 나머지 4척은 대우조선해양이 수주했다고 보도됨. 그 외 그리스 선주들이 VLCC 2척을 리세일로 매입했다고 알려짐. (선박뉴스)

한화시스템, 차세대 중형위성 핵심부품 소형화·경량화 성공

한화시스템은 지난 22일 발사·교신에 성공한 우리나라 첫 차세대 중형 위성 1호의 광학 탑재체 카메라 제어부와 초점면 전자부 등을 국산화하는데 성공했다고 보도됨. 최근의 세계 우주 개발은 위성을 얼마나 작고 가볍게 만들 수 있느냐의 경쟁인데, 기존 1,100kg였던 위성을 500kg로 만들기 위해 한화시스템은 탑재체를 150kg으로 소형화·경량화했다고 보도됨. (뉴스1)